

포장업계 수많은 족적 남겨 35년간 교직생활 마감한 명예로운 정년퇴임

신동소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옛 말도 있듯이 한나라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고 지난 4월 3일 명예롭게 퇴임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신동소 교수는 35년 동안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 냈을 뿐만 아니라 관련업계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번 퇴임식은 제자들이 손수 자리를 마련하여 더욱 의미를 깊게 했으며 수백명의 제자들과 관련업계 귀빈들이 참석하여 신 교수의 재직기간 화려했던 활동을 증명해 주었다.

“그동안 건강하게 35년 교직생활을 무사히 마칠수 있었던 것은 사랑과 지도편달로 보살펴 주신 은사님과 주변의 모든 선배, 동료, 가족, 친지의 성원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전공분야인 임산과 종이는 기초자재로서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이라고 자부하며 일해 왔으며 조금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고 짧게 퇴임소감을 밝혔다.

신동소 교수는 57년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을 졸업하고 60년 3월 동 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 66년부터 70년까지 일본 큐슈대학원에서 농학연구과 박사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신동소 교수

한편 신 교수는 6·25동란 당시에는 학생의 신분으로 전시예 참전하여 부상을 당하기도 했으며 그후 대학원 재학시 다시 군에 입대하여 군번이 둘이라고 여담을 들려주었다.

필프학, 제지학, 섬유학, 목재보존학을 강의해 온 신 교수는 60년 4월부터 73년까지 진주 국립경상대학교 농과대

학에서 13년간 강의를 하다 그후 모교인 서울대 농생대에서 금년 2월29일까지 강의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교수생활 35년을 마감했다.

신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 가르치는 것 이외에 인간적인 자질을 가르치는데도 남다른 관심을 가졌다. 그 이유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의무라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당시 임산가공학과가 신설학과이다 보니 졸업후 진로에 대한 문제 등이 대두되어 학생들이 불안감을 갖게 되었고, 배출된 선배가 없어 교수가 직접 제자들의 취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하는 어려움도 겪었다고 토로했다.

“임산과 종이는 기초자재로서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문이라 자부하며
35년동안 일해 왔으며 조금도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

“지금은 이 분야의 인력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당시는 펄프산업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아 졸업생들을 배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기업체를 찾아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경영자들을 설득해야 했으니깐요”라고 당시의 어려움을 회상하는 신 교수의 얼굴에 이제는 편안한 미소만이 자리잡고 있었다.

35년간 학계와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 교수는 각종 학회 활동에도 적극성을 보여 예산문제에 허덕이던 한국펄프제지공학회 회장직을 10년간 맡고 그간 각종 행사를 기획하여 안정을 찾게 했으며 5대째 유임해 왔다.

또한 이외에 94년에는 한국포장학회를 창립하고 각종 국제 세미나, 심포지엄등을 개최하여 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계를 이끌어 가고 있다.

“모든 업계의 공통적인 과제이지만 전문인 양성이 가장 절실하며 산학연계를 바탕으로 우수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서 포장의 역할, 포장재료, 포장기법 등 학계간, 업체간의 긴밀성, 국제간 협력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요”라고 업계발전을 위한 제언을 조심스레 밝히기도 했다.

퇴임하는 순간까지도 연구에서 손을 떼지 않았던 그는 교수이면서 연구원이었다. 그간 물을 줄이고 종이의 품질을 높인 중성지 개발과 고지를 종이로 만드는 기술개발, 과일전용 봉투를 수입대체했으며 퇴임전까지도 잡초억제용인 멀칭필름의 중

이대체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기업이 아닌 학계에도 시류에 따라가기 위해 자기 전공분야와는 전혀 동떨어지더라도 상업성이 있는 제품을 연구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개발이 상품화로 연결되어 이윤을 추구하게 되는 것도 좋지만 보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널리 도움이 될 수 있는 순수 연구에도 많은 학자들이 눈을 돌렸으면 한다고 바람을 덧붙였다.

“지금까지 학교에 매여 시간을 낼 수 없어 할 수 없었던 각종 봉사활동 등을 퇴임후에도 계속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폐지는 제지원료로서 중요하게 이용되는데 현재 수집이 안되고 있는 형편이라 이에 대한 홍보와 국외 기술을 국내에 접목시키는데 여생을 바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서울시 시민협의회 임원과, 한국한림원 종친회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봉사단 부단장으로 이미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그의 저서로는 임산화학, 임산가공, 중성지, 고지리싸이클링 등이 있으며 경상남도 문화상, 농업생명과학 연구대상, 한국임학회 회장상 등 화려한 수상경력도 가지고 있다.

올해 65세인 그는 3남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여 59세의 부인 문윤자씨와 여의도 자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말없는 힘이 되어준 부인의 내조덕이라고 강조하며 말을 맺었다. ☐

이선하 기자